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 800억 투입

주민지원사업·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사용

수계관리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내년 영산강·섬진강 주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800억원의 수계관리기금이 투입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문정호 환경부 차관)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센터에서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영산강, 섬진강 유역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이 일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오염총량관리 등에 사용된다.

회의에서는 내년 수계관리기금 규모를 ▲물이용부담금 713억(광주 235억·전남 143억·수자원공사 335억)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재산수입 등 13억8000만원 등 800억5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전년도(733억)에 견줘 9.2%(6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위원회는 또 수계관리기금 운용방안과 관련, ▲주민지원사업 145억 4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155억2000만원 ▲수질개선지원 54억4500만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244억2500만원 ▲오염총량관리 41억1400만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전남도와 인접한 12개

시·군에 114억원이 지원되며 광주는 동북호 관리(2억), 자치구별 하수관리(48억) 등 81억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457억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원돼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역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관리기금 사용방안이 확정된 만큼 영산강·섬진강 유역 수질개선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TA 비준 중단 요구 범국민대회

29일 농민과 학생, 노동자가 참여해 열린 6·29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서울 세종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혀 대치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과 학생 등 20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열어 "무분별한 무관세 수입과 물가안정대책으로 농산물 가격이 작년 대비 80%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무관세 수입 중단과 규제완화 보상을 지금, FTA 비준 중단 등을 요구했다.

29일 농민과 학생, 노동자가 참여해 열린 6·29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서울 세종로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혀 대치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과 학생 등 20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열어 "무분별한 무관세 수입과 물가안정대책으로 농산물 가격이 작년 대비 80%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무관세 수입 중단과 규제완화 보상을 지금, FTA 비준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는 영조물(營造物)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 배상 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파손 도로서 신발 망가졌다면 5만원"

"가로수에 상가벽 균열 400만원 배상"

지자체 관리 잘못·주민 피해 배상 결정 잇따라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 유모(여·29)씨는 지난 10일 '불쌍한 내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시청 인터넷 민원상담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유씨는 "음푹 패인 광주시 서구 한 도로를 걷다가 남편에게 선물 받은 새신발이 찢어졌다"며 "파손된 도로를 제때 조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신발 값 8만4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서구는 현장 조사와 함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배상 여부를 의뢰했다.

이러 공제회는 현장 점검과 유씨

의 주장을 토대로 지자체와 피해자의 과실을 6:4로 판단, 서구가 망가진 유씨의 신발 값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서구는 유씨에게

찢어진 신발에 대한 배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다.

서구 관계자는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농성2동 한 도로변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박모(여·56)씨 역시 지난 2월 "점포 앞에 심어진 가로수의 뿌리가 가게 내부로 파고 들어 건물과 유리창에 균열이 생겼다"고 서구에 민원을 냈었다.

이와 관련 서구는 공제회에 배상 책임을 물어 400만원을 배상금으로 박씨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김희호기자 kimho@kwangju.co.kr

"미군기지 오염실태 직접 조사하겠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밝혀 "군공항 주변주민 불안해소"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광주 군 공항 내 미군기지에 대해 자체적인 오염실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애초 광산구는 국방부가 오염실태조사는 해당 지자체의 사무라는 입장을 밝히자 국가사무인 국방에 관한 문제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긴다고 반발한 바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29일 가진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 안에 있는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를 광산구가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조사를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선 광산구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국방부가 '토양환경보전법'을 들어 지자체 우선조사 입장을 밝히는데 대해 헌법 제111조 제1항 4호에 근거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조사 대상과 지역이 선정되는 즉시 광주 군 공항내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 구청장은 광산구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 구청장은 수완지구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단속 전에 몇 차례 찾아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를 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장해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불법광고물 단속 의지를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기원대기자 wtkee@

검·경 수사권 불만 검찰간부 잇단 사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면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측 협상팀을 이끌던 홍만표(52·사법연수원 1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29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호철(44·20기) 형사정책단장을 비롯한 부장검사 3명과 최희신(46·25기) 대구지검 공판부장이 수사권 조정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의를 밝히는 등 항의성 집단사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 부장은 이날 오후 이프로스에 "수사지휘권 없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 검찰의 신뢰 회복, 검찰의 주장이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결연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홍 검사장도 이프로스에 올린 사의를 담은 글에서 "건강이 많이 상했다"고 일신상 이유를 들면서도 "정 치권과는 냉정하게, 경찰과는 따뜻한

게 관계를 유지해달라"며 여운을 남겼다.

홍 검사장의 사의 표명에는 책임론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진방에서 협상을 수행한 책임자로서 검찰에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합의안이 수정된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유급보좌관제 입법화해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밝혀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의회 성숙을 위해 국회에서 연내에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제6대 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유급보좌관제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광역의회 의장단이 여야 대표를 만나 연내 입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또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추진과 관련해 "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관련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되면 내

년부터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호남권광역의회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LH 본사의 진주이전과 광주공항 이전 및 군산공항 활성화, 과학벨트 유치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 등과 대립이 생기면서 의장단 모임도 차질을 빚었다"며 "앞으로 의장단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시·도지사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취임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최근 무혐의 결정을 받은데 대해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

IMF 첫 여성총재

라가르드 선출

1947년 국제통화기금(IMF)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성 총재가 탄생했다.

IMF는 28일 워싱턴 D.C.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새 총재로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55) 재무장관을 선출했다.

라가르드 신임 총재는 성추문으로 지난달 사임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뒤를 이어 다음달 5일부터 임기 5년의 총재로 활동한다. /연합뉴스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혁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

심리번호 2112073